文-安 PK 격돌 “승기 잡아라” 지도부 호남 총출동

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 호남지원단 50명 구성
광주·전남 전역 순회
국민의당, 현역의원 총동원
주택가·전통시장 총력 유세
文-安 PK 유세 인산인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인 21~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권의 심장인 광주·전남과 각 당 후보의 고향인 부산·경남(PK)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중앙선대위원회 조직본부에 호남지원단을 구성해 중앙 차원의 호남 선거지원에 나서며 호남에 공을 들였다. 국민의당도 현역 의원과 지방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선거운동 초반 판세를 잡기 위한 텃밭 수성에 집중했다.

◇**광주·전남 총공세**=광주·전남에 현역의원이 1명뿐인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휴일인 23일까지 호남 출신 국회의원, 호남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연고를 둔 국회의원 등 50여명을 뽑아 지역에 투입했다. 지난 21일에는 김태년 의원이 고향인 순천을, 조응천 의원은 해남·완도를, 박범계·김두관 의원은 광주를, 안민석 의원은 강진을, 박영선 의원은 고흥·해남·완도·영광을 찾았다.

22일에는 이훈 의원이 영암·무안·신안을, 김진표 의원이 구례를 찾아 동료의원들과 합류해 지원유세를 펼쳤고, 23일에는 최운열 의원이 영암·무안·신안을, 김영호 의원이 해남을, 이재정 의원이 광주를, 박경미 의원이 영암을 찾았다. 이들은 집중 지원 유세와 주요상권 선거운동, 경로당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이어갔다.

중소상공인을 돕는 을지로 위원회 소속 우원식·이학영·송옥주 의원도 23일까지 광주·목포를 찾아 복합쇼핑몰에 반대하는 상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당도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박지원·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총출동해 민주당의 세확산을 저지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중앙당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광주시당에 긴급 투입해 텃밭 표심 지키기에 나섰다.

박지원 선대상임위원장은 22일 광주에서 23일 전남에서 지원유세를 펼치며 텃밭 민심 굳히기에 나섰다. 주말인 22일에는 박주선·권은희·김경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무등산과 양동·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펼쳤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문흥동과 두암타운 등지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며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휴일인 23일 광주를 찾아 박주선·김동철·권은희·송기석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송정 5일시장, 상무시민공원, 충장로 등지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시민들과 스킨십을 넓혀갔다.

◇**文·安은 PK 집중 공략**=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PK)을 폭넓게 훑었다. 문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성산구·부산 서면을 차례로 돌며 오후 내내 유세를 이어갔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마지막 유세가 펼쳐진 부산 서면에서는 3만여명의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모였다”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래 최다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모두 자신을 지지한다고 강조한 뒤 “부산에서 이렇게 통 크게 뭉친 적이 있나”면서 “부산에서 불던 정권교체 동남풍이 이제 태풍이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모두 하나가 됐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22일 자신의 고향인 PK를 집중 공략했다. 안 후보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앞서 안 후보는 오전에 고향인 부산에서 안풍(安風)의 재확산에 집중했다. 전날 해운대의 부모님 댁에서 묵은 안 후보는 새벽에 해운정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을 예방한 뒤, 곧바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안 후보는 이어 경남 창원 소답시장과 마산어시장을 각각 들러 유세하며 각 지역의 대표 공약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PK 유세에서 “저는 이념과 지역을 넘어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아 집권하면 가장 안정된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면서 “편가르기 갈등의 악순환을 끝내고 통합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언급, ‘통합’ 키워드를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김정숙 여사 “오랜만입니다”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에서 열린 광주·전남기자협회 춘계체육대회를 찾은 국민의당 박지원(오른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조 전쟁’도 불꽃

김정숙-김미경 여사, 광주·전남 복지관·전통시장 돌며 강행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부인들의 ‘내조 전쟁’도 치열하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인 22일 문-안 두 후보가 부산·경남(PK)에 표심 잡기에 집중할 때 양 후보 부인들은 21~23일 사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표심을 훑으며 경쟁을 벌였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 기간 호남과 서울 등을 오가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남편의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다.

김 여사는 지난 21일 목포에서 노인복지관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나는 등 호남 바닥 민심을 파고 들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일정 전체를 목포에서만 잡고, 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년층 유권자들과 만나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첫 일정은 목포시 임암로 이랜드하당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 상동경로당, 춘광경로당, 신안비치3차 경로당을 차례로 들렀다. 22일에는 광주·전남기자협회 체육대회에 들러 지역 기자들을 찾아 인사한 뒤 구례 자연드림파크 건립 3주년 축제에 참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광주·전남을 촘촘히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교수는 22일 오전 8시 보성 5일장을 시작으로 장흥 토요시장, 구례 자연드림파크 건립 3주년 축제, 순천 아랫장, 강진의 병영성 600주년 개막 축하공연장을 차례로 들러 전남도민들과 만났다.

21일에는 광양 5일장에서 유세하고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부인들과 배식 봉사를 하며 안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휴일인 23일에는 안 후보 고향인 부산에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안 후보가 졸업한 부산고등학교 총동문회 가족의 날 행사장을 찾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安 당선돼도 임명직 진출 안해”

목포 유세서 ‘상왕론’ 일축… “난 영원한 DJ 비서실장”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안 후보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선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국민의당 안 후보에 대한 ‘박지원 상왕론’을 일축하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 후보가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남 보수층의 박 위원장에 대한 비호감으로 안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박 위원장도 곤혹스런 상황이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저는 이미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직후, 이러한 뜻을 안 후보에게 밝혔다”면서 “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겠다. 박지원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安 ‘중간지대’ 놓고 줄다리기

통합 이미지 극대화… 김종인 금명 거취 표명할 듯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이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중간지대’ 인사에 대한 영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중도층에 대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강의 두 후보 간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까지 양측의 ‘러브콜’을 받았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문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김 전 대표가 가장 주목받는 인사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최근 “문 후보를 도울 일은 절대로 없다”고 공언하면서 안 후보 측으로 행선지를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명간 거취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안 후보가 ‘자강론’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김 전 대표의 영입을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중간지대 인사와 손을 잡을 경우 이들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통합형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지경기자jkpark@

갤럽 여론조사 文 41%·安 3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문 후보는 지난주보다 1%P 오른 4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전주보다 7%P 떨어진 30%에 그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9%,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로 뒤를 이었다.

문 후보는 대전·세종·충청(39%→46%)과 광주·전라(47%→51%)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홍 후보는 ‘안방’인 TK(26%)에서 1위에 오른 데 힘입어 지지율을 2%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당 19%, 한국당 9%, 바른정당·정의당 5%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5%P 떨어져 안 후보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고, 한국당은 변동이 없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종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종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